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인천소식

김기준 | 인천일보 기자

뜻깊은 연말 국악행사 이어져

연말을 맞아 종교단체나 시립예술단, 사설 공연단체 차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캐롤축제’가 풍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국악계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 한겨울 날씨와 달리 인천예술계는 지난해 12월 한 달 훈훈한 열기를 뽐내었다.

내용도 중요무형문화재 전승공연부터 풍물패 잔치마당, 송년 국악의 밤 등 골라 보기에 적절한 것들이어서 형클어진 연말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악을 즐기며 한 해를 정리하는 여유로 문화지수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연말 국악공연은 지난 12월 13일 오후 7시 부평구청 대강당에서 풍물패 잔치마당이 〈우리 열 지키기 10년〉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풍물패 잔치마당은 장구만의 설장고놀이와 쇠·징·장고·북의 사물놀이, 어울림 속에 드넓은 한국인의 기상을 확인하는 〈파워 코리아〉를 선보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배뱅이굿 한마당과 경기·충청 옷다리풍물, 호남의 우도풍물, 영남의 삼천포풍물 등 우리나라 삼도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는 삼도 사물놀이를 보여주는 마당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전통악기가 아닌 일상 생활도구들을 악기화하여 우리 전통가락과 서양의 비트를 넘나드는 ‘퓨전 난타’도 마련됐다.

15일에는 수봉공원 민속놀이마당에서 인천무형문화

재 제3호인 〈인천근해 갯가노래 및 뱃노래〉 공연과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인 〈은율탈춤 2002 전승공연〉이 함께 열렸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인천근해 갯가노래 및 뱃노래〉 공연에는 차정재 보존회장과 송의신, 조무형, 김병기 씨 등 34명의 기능보유자가 출연, 〈그물소리〉 〈노젓는 소리〉 〈바다소리〉를 비롯해 〈어선노래〉 〈갯가노래〉 등을 구성지게 불러 우리 가락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다.

오후 1시 40분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인 ‘은율탈춤’ 전승공연이 이어졌다. 고사, 길놀이와 함께 은율탈춤 전 과정이 펼쳐진 이번 전승공연에서는 은율탈춤보존회장인 김춘신 선생을 포함한 31명의 전승자가 황해도 서부 평야지대 중심지인 은율에서 전승되어 온 전통탈춤의 참맛을 보여줬다.

여섯 마당으로 구성돼 있는 은율탈춤은 말뚝이, 사자, 상좌, 목중, 최팔이, 노승, 원승이, 영감, 할미, 똥단지, 무당 등이 등장, 〈꼬득이타령〉 〈대꼬타령〉 〈병신난봉가〉 〈나니가타령〉 등 황해도 지방의 향토색 짙은 민요를 들려줬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 주요시지정 무형문화재 총연합회가 후원했다.

〈인천미술협회 회원전〉 개최

한국미술협회 인천시지회 회원은 물론 이들 회원 등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 문하생과 비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설을 비롯해 중앙 및 소전시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62회를 맞은 〈인천미술협회 회원전〉은 이번에 특별히 ‘인천미술한마당전’이란 부제를 붙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로와 아마추어 화가들이 함께 자리를 하도록 유도, 예년에 비해 월등히 풍성하게 치른 것이 특징이다.

인천미협 관계자는 “문호를 비회원인 미술인들에게까지 확대함에 따라 올해는 모두 320여 명의 작품을 전시하게 돼, 100여 명 선이 참여했던 지난해보다 출품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주최측은 일부에서 미술협회전에 비회원을 참여시킨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을 의식, “아마추어 미술인들도 인천 미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대형 전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더욱 열정적인 창작열을 불어넣는 것이 행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많은 작가의 작품을 소화하는 관계로 소품 위주의 작품을 내걸었지만 “소품에 농축시킨 작가의 창작의도를 해석하는 것이 또 다른 감상 포인트”라는 게 미협 관계자의 설명.

미협회원 165명, 비회원 157명 등 인천에서 활동하는 작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322명의 작품을 한꺼번에 내건 이 전시회는 관객 입장에서 작품을 통해 스승과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 또 다른 묘미였다.

인천시 유·무형문화재 추가 지정

인천시가 지역 내에 보존되고 있는 건축물 10개를 새롭게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차를 접대하는 생활예절을 정립시킨 ‘규방다례’를 국내 최초로 시 차원의 무형문화재로 선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전등사 목조삼존불 좌상(1623년 제작)은 인천시 문화재위원들로부터 얼굴과 신체, 의습 표현에서 드러나는 볼륨감과 생동감 있는 분위기, 뛰어난 조각솜씨가 돋보일 뿐 아니라 조성기까지 알 수 있어 17세기 전반의 조각양식과 조각승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평을

받았다.

꼼꼼하고 생동감 있는 필력(筆力)이 구사되고 현왕(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심판하는 왕)의 도상적 특징을 잘 보여줘 19세기 불화연구를 위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전등사 약사전 현왕탱〉(1884년 제작)과 청대 말기식 화염문이지만 어두운 색배합 등으로 20세기의 변모된 불화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전등사 대웅보전 후불탱〉(1916년 제작)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제작 연대가 1544년인 전등사 법화경판은 현존하는 30여 점의 법화경 경판 가운데 그 조성 시기가 분명하고 특히 임진왜란 이전 조성으로 밝혀진 것은 8점에 불과한 점을 인정받아, 고려말에서 조선초 작품으로 추정되는 ‘청동수조’도 전등사 사세를 엿볼 수 있는 유물로 평가돼 시 문화재의 자리를 차지했다.

망자의 죄업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울인 전등사의 ‘업경대’ (1627년 제작), 불상을 안치한 일종의 대좌와 같은 형식으로 대웅전 내의 ‘천개(天蓋)’와 더불어 장엄한 불교세계를 표현한 전등사 ‘수미단’ (17세기 추정)도 같은 등급으로 인정됐다.

중구 송학동 2가에 위치한 홍예문(1908년 제작)은 토목구조물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연구돼, 중앙동 2가 (구)인천일본 18은행지점은 비교적 단순한 건물이지만 입면의 창과 문의 장식이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내며 원형이 더 이상 손상되기 전에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 문화재로 지정됐다.

경인소식

류 주 선 | 경인일보 기자

시민 참여 노인 송년 공연들

2002년을 마감하는 크고 작은 송년 공연들이 풍성했던 지난 연말, 전문단체와 일반인이 함께 무대에 선 대형 음악회 2개가 눈길을 모았다.

그 동안 아마추어 단체와는 협연을 거의 하지 않던 수원시향(상임지휘자 박은성)은 수원지역 3개 아마추어 합창단과 함께 12월 18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헨델의 〈메시아〉를 연주했다. 또 안산 A&B오케스트라(음악감독 최영주)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합창단 500명을 공개 모집해 12월 28일 안산 동산고등학교 비전홀에서 〈500인 합창단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를 가져 화제를 모았다.

수원시향은 전문 합창단 대신 수원중앙침례교회 연합 찬양대, 수원기독교남성합창단, 이반젤리컬 싱어즈로 연합합창단을 구성해 2시간 20분의 대곡을 소화했다. 독창자로는 소프라노 최윤정, 알토 김자희, 테너 정호윤, 베이스 조창연 씨가 출연했다. 전문 합창단만큼 질감 좋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신선한 연주’라는 평을 받은 시향은 이 연주회를 계기로 매 연말 지역 음악단체들과 함께 하는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A&B오케스트라는 (사)기업과 예술의 만남(이사장 장성숙) 산하 연주단체로 지난 1999년 창립되어 안산과 경기도 내 공단지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연주회’를 열어 호평받고 있다. 500인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리운 금강산〉 〈상투스〉 〈천사들의 합창〉 등을 불러 감동을 안겼는데,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여러 종교의 합창단과 개인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유성기 노래 복원해 경기소리극 꾸민 경기토리회

경기민요 애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경기토리회(회장 최은호, 경기도립국악단 민요팀)가 경기소리극 〈온돌야화〉를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올렸다.

‘토리’라는 말은 전국 각 지방별 음악적 특성을 일컫는 순수 우리말. 이 공연은 경기민요와 1920~1945년 사이에 발매된 유성기 음반에 나온 신민요를 복원, 하나의 줄거리를 갖는 소리극으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도로 지역 문화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온돌야화〉(김다인 작사, 전기현 작곡, 이영한·함석초 노래, 리갈레코드 발매)는 김세레나 노래로 잘 알려진 〈갯돌이와 갑순이〉의 원곡으로 이번 소리극의 골격이 됐다. 공연에서는 이 밖에도 〈노들강변〉(신불출 작사, 문호월 작곡, 박부용 노래, 오케레코드), 〈치녀충각〉(범오 작사, 김준영 작곡, 강홍식 노래, 콜롬비아레코드), 〈덩더쿵타령〉(김영파 작사, 전기현 작곡, 이은파 노래, 태평레코드) 등 6곡과 순수 경기민요가 상황에 적절히 구사돼 있다.

최 회장은 “민요를 나열식으로 들려주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불렀는지 보여주는 것이 공감을 이끌어내기 쉬울 것 같아 소리극을 꾸몄다”며 “국악과 민요 대중화를 위한 시도”라고 소개했다.

대전소식

업은 화 | 중도일보 기자

도심 속 수백여 년의 역사 지닌 유천동 산신제 시연

외래문화가 범람하고 다양한 종교가 있는 요즘에도 산신을 믿고 도심 속에 있는 산제당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이들이 있다. 유천동 산신보존회(회장 유명준) 회원들은 매년 음력 11월 3일이 되면 유천시장 옆에 위치한 산제당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지난해도 유천동 산신보존회 회원들은 12월 6일 오후 2시, 산제당에서 전통의 맥을 잇고 향토 민속이 계승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를 올렸다.

이제는 과거처럼 풍요나 산짐승으로부터의 안전을 기원하지는 않지만, 마을의 안녕과 시민들의 평안, 나라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생기복덕한 사람을 제관으로 뽑고, 7일간 찬물로 목욕제계하고 제를 올리며, 제사가 끝나면 제물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누어 먹는다. 또 농악을 울리는 흥겨운 뒤풀이로 흥복을 축원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산신제 비용을 마을 전체에서 각출해 충

당했다면, 지금은 유천동 부락민의 성금과 지난 1998년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이후 지원받게 된 제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옛날 풍속대로라면 자시(밤 12시)에 진행되어야 하나 요즘은 주민의 태평안가를 기원하는 제로서 오후 2시에 펼쳐지고 있다. 산신제의 취지는 살리되,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여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해 가고픈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산신제를 위해 보존회원들은 통돼지 한 마리와 대추, 꽃감, 백설기, 통복어, 삼탕(육탕, 어탕, 소탕)과 삼채(숙주나물, 고사리, 푸른 나물), 약주 등을 준비했다. 제물은 제관의 집에서 준비하고, 제관, 축관, 집사, 짐꾼만이 올라가 제를 지내며 제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은 불을 켜 채 집에서 기다리게 된다. 예를 갖춘 제례가 끝나면 징을 세 번 쳐 무사히 제를 지냈다고 알리며 어른들은 음복하고 축제가 시작된다.

유명준 유천동 산신제보존회장은 “수백여 년의 역사를 지닌 유천동 산신제는 일제 침략으로 단절기를 맞았지만 전후 다시 복원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차칫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쉬운 현대문명 속에서 전통의 끈을 놓지 않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도심 속 산신제라는 이색 행사로 남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산신제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미술문화 다시 보기 <영남·호남 그리고 충청>전

각 지역 미술의 면모를 살펴보고 독려함으로써 우리 미술문화 전반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전시가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전시의 타이틀은 <영남·호남 그리고 충청>전.

이달의 지역 현장 | 강원문화

세계적인 화백의 예술혼과 작품세계, 고향에서 영원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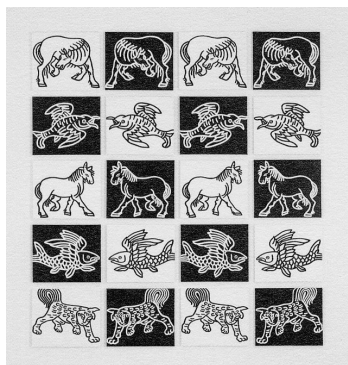
남궁현 | 강원일보 기자

강원도에 또 하나의 문화공간이 탄생했다. 마티에르 기법으로 유명한 세계적 화가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예술혼이 담긴 미술관이 그의 고향이기도 한 인구 2만 5천 명의 양구군에 마련, 지난해 10월 25일에 개관했다.

이중섭과 함께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박수근 화가의 삶과 예술을 기린 미술관 개관은 국내 유일의 군립미술관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보기 드문 미술기념사업을 벌였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만하다.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 격동의 시기, 미술이 사치처럼 인식되던 가난한 때 작품활동을 이어간 박수근이 6·25 동란 때 미군의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생계를 이어간 젊은 시절은 곧 가난하고 황폐했던 이 나라의 자화상 같기도 하다.

이름 없고 가난한 서민의 삶을 소재로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리고자 일생을 바친 그는 단순한 형태와 선묘를 이용해 대상의 본질을 부각시키고 서양화기법을 통해 우리 민족적 정서를 가진 화강암과 같은 재질감으로



문화 전반이 중앙을 축으로 하는 공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각 지역의 미술문화는 서서히 지역성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색을 달리해 왔다. 오늘날 다변화된 사회문화현상 속에서 지역성은 한정된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제시와 확장의 의미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전시는 각 지역의 미술을 대별해 보고 그들 미술 속에 녹아 있는 다양한 삶과 예술 그리고 고유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런 기회에 지역의 활발한 창조적 에너지를 결집하

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미술문화 창출에 일익을 담당해 나자가는 취지로 각 지역의 문화적 토양을 기반으로 한 고유의 미의식을 독자적인 조형언어로 담아내고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초청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독창성으로서 지역성의 의미를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윈터 페스티벌 2002〉 열려

추운 겨울날 가족들과 언제나 둘러볼 만한 겨울철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엑스포 과학공원이 동절기 특별 이벤트로 마련한 〈윈터 페스티벌 2002〉.

지난해 11월 3일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3월 2일까지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엑스포 과학공원 정문 광장에 61m×31m 크기의 국제 규격 아이스링크에서는 행사기간 동안 모스크바 아이스

표현해 넘으로써 한국적인 미의 전형을 이루어냈다. 우리 민족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던 그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구현한 서민화가이자 20세기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불굴의 예술혼을 불태우면서 가난을 극복하고 이 나라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명작 등을 남긴 박수근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술활동을 했다면 피카소처럼 현세에서 부와 영광을 만끽했을 법도 하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삭막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고독한 작가의 길을 걸은 박수근미술관의 건립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국내 화가 중 최고의 값으로 팔리며 저변의 삶을 진술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박수근미술관의 개관은 강원도의 보람이며 한국적 자량이다. 양구군민의 긍지를 한껏 드높이는 한국 예술사의 거장인 박수근미술관은 박 화백이 소년시절 미술에 대한 꿈을 키우던 양구읍 정림리 생가터 5,537평의 부지에 연면적 205평 규모로 세워져 자

연석을 이용한 외관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미술계뿐만 아니라 건축계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다. 총 21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미술관은 박 화백의 삶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20평 규모의 기념전시실과 58평 규모의 기획전시실, 다실 및 뮤지엄숍, 수장고 등이 완비돼 소장 작품과 생전에 사용하던 안경, 사진, 편지 등과 함께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유품, 스ك랩북 등 2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향운·향습 시설이 완비된 수장고는 박 화백의 작품과 국내 유명 작가들이 기증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기획전전을 통해 전시된다. 기획전전시실(58평)은 〈봄·가을 정기〉전을 비롯한 신진작가 발굴을 위한 〈젊은 작가〉전, 〈청소년사생〉전 등 다채로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외에도 다실과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뮤지엄숍을 마련하고 옥상은 박 화백의 생가터와 양구 시가지

발레단 공연, 대전시장 및 과학공원 사장배 마스터즈 대회, 국가대표 초청 시범경기, 빙판 위의 크리스마스 축제, 얼음 조각 대회 등 겨울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축제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과 산타와 함께 하는 캐릭터쇼, 산타 만들기 경연대회, 캐롤송 연주회가 열렸다.

아이스링크 메인 공연인 모스크바 아이스발레단 공연은 1월 25일까지 매일 2회씩 공연되며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행사기간 중에는 음악과 춤이 만나는 얼음 조각 퍼포먼스, 빙상대회, 국가대표 초청 시범경기, 청소년 스케이트 캠프가 열리고 있다.

과학공원 측은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윈터 페스티벌

을 준비했다”며 “동절기 특별 이벤트장에서 겨울 추억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이스링크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료는 어린이 5천원, 청소년 6천원, 어른 7천원이다.

충청소식

이 현 숙 | 충청일보 기자

다채로운 송년음악회

송년음악회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청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지난해 12월 17일 저녁 7시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청주시립국악단 상설연주회>가 17일 저녁 7시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또 <CBS 청주방송 송년음악회>가 12일 저녁 7시 청주예술의전당 대

를 내려다볼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꾸며놓았다.

양구군은 미술관 개관을 기념해 ‘박수근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는 개관기념전을 내년 2월 말까지 개최한다. 박 화백의 유화 등 진품 30여 점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특히 미공개작도 10점 포함돼 있어 그의 작품세계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게 됐다.

개관과 함께 고향에 첫선을 보인 박수근미술관 개관기념전인 <박수근의 삶과 예술>전에는 1935년께 고향을 떠난 뒤 처음으로 고향을 찾아 그린 <나무와 두 여인> <아기업은 소녀> <초가마울> 등 대표적인 유화 9점과 수채화 <책가방> 등 미공개작 10점이 현대갤러리의 무상임대 방식으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가난 속에 고향을 등지고 떠난 뒤 박 화백의 이름밖에 들어보지 못한 주민들이 직접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문화의 보편성을 입증하는 박 화백의 삶을

한눈에 펼쳐보여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박수근미술관은 유료관람객이 3,500여 명을 웃돌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박 화백을 비롯한 국내 유명 화가들의 작품기증도 잇따르고 있다.

금성출판사 김낙준 대표가 기증한 박수근 작 수채화 <화구>를 비롯해 지금까지 박 화백 판화 20개 스케치 작품 등 25점과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등 80여 점을 기증받았다. <화구>는 1962년 작품으로 시중가 3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내외 뜻있는 미술애호가들이 박 화백 작품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잇따라 기증해 미술관을 빛내고 있다”며 “올 2억 7천만원과 내년 5억원을 편성해 박 화백의 유화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홍준 박수근미술관 명예관장(명지대 문화예술대학 원장)은 “박수근미술관은 현재까지 세워진 국내 기념관

공연장, <문화사랑 송년 대음악회>가 24일 저녁 7시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각각 마련됐다.

청주시립합창단은 김정연 씨의 지휘로 헨델의 <천지창조>를 연주했다.

3부로 구성된 <천지창조>는 ‘혼돈에서 천지의 출현’을 테마로 장엄한 종교음악의 진수를 담고 있는 음악이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 수난과 속죄 등 전체적으로 극적 긴장감과 감동을 자아냈다. 출연은 소프라노 권진, 테너 김태훈, 베이스 김진성, 오르간 신혜경, 피아노 최향희, 팀파니 이상수 씨 등이 무대에 섰다.

청주시립국악단은 <우리소리와 함께 하는 캐롤>을 꾸며 전우실 편곡 미국 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파가니니의 <파가니니 소나타>, 한석 곡 <사물과 태평소를 위한 터>, 이추영(피리), 황인수(태평소)의 <캐롤송>을 들려줬다.

<CBS 청주방송 송년대음악회>는 덴마크국립합창단을 초청했다. 덴마크국립합창단은 유럽 전역에서 폭넓은 활동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합창단으로 지난 1932년에 창단해 총 7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청주 공연에서는 정통 아카펠라 합창 음악의 진수를 선보였다.

<문화사랑 송년 대음악회>는 클래식과 전통음악인 국악 등이 어우러진 무대. 출연은 소프라노 연광자, 테너 전인근, 바이올린 양승돈 씨를 비롯해 청주과학대학 이강희 교수가 이끄는 충청체임버오케스트라가 연주했다.

서지은 청주현대무용단 정기공연

서지은 청주현대무용단 정기공연이 지난해 12월 12일 저녁 7시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사랑, 그리고 춤’을 주제로 4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이번 공연은 젊은 춤꾼들의 에너지와 표현력을 엿볼 수 있는 무대.

중 가장 아름답게 설계됐을 뿐만 아니라 전문 큐레이터를 고용하는 등 조직적인 운영체계를 갖췄다”며 “서울 및 대도시 유명 작품전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박수근 미술관을 주민들의 문화공간과 살아 있는 미술관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렇듯 외양을 갖추는 데는 성공했으나 박 화백의 유화작품이 없는데다 유품과 삽화, 판화 등을 확보하는 데 그쳐 내실을 기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박 화백의 진품이 한 점도 없다는 평가는 잘못된 시각이라는 유 교수는 “프랑스 파리의 반 고흐의 예술세계를 기리는 파리 박물관이나 피카소 미술관에도 고흐나 피카소의 대표작이 하나도 없지만 세계적인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며 “박 화백이 어린시절 뛰어놀던 고향 생가터에 건립된 박수근미술관은 박 화백의 작품과 유품 등 200여 점이 전시되는 등 진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언젠가는 박 화백의 진품을

전시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 대표화가의 예술혼을 기리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핵심인 유화가 없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꺼림칙하다.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멋진 건물보다 충실한 내용과 유화를 보기 위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보통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세계적인 화가 박 화백의 예술혼과 작품세계가 고향에서 영원히 꽃피울 수 있도록 미술계는 물론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 관람시간 : 하절기(3~10월)/오전 10시~오후 6시
동절기(11~2월)/오전 10시~오후 5시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 입장요금 : 일반 1천원, 청소년·군인 700원,
초등학생 500원, 65세 이상 노인과
7세 미만 어린이 무료

공연작은 유경옥(한국교원대 출강) 안무의 〈Dream Away〉.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꿈을 저버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끈기함을 춤사위로 표현. 현대인의 상념을 춤을 통해 역설했다. 유경옥을 비롯해 복선영, 신수빈 씨가 출연.

최화정(프랑스 나오리무용단 대표) 안무의 〈누에고치〉는 누에고치의 생성과정을 통해 해탈의 경지를 상징화. 물레, 천 그리고 인간의 삼각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예기치 않은 긴장과 이완의 교감을 조화롭게 구성했다. 윤현선 씨 출연.

천은영(충남대 출강) 안무의 〈마지막 기도〉는 인생의 허망함을 춤사위로 담아낸 작품이다. 헛된 욕심을 버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심정으로 구원의 춤을 안무했다. 이우경, 박선영, 이운선, 김진경, 이현정 씨 등 13명이 무대에 섰다.

청주시립무용단 연말 특별기획공연

청주시립무용단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5시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연말 특별기획공연을 펼쳤다.

청주시립무용단이 꾸민 이번 무대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춤판. 크리스마스에 얹힌 재미있는 춤으로 공연을 마련했다.

‘루돌프 사슴코는 왜 빨강지’를 주제로 4개의 작품을 올렸다.

공연 작품은 캐롤송에 맞춰 수화무용을 구성한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김혜경, 박향남 안무),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이의 마음을 그린 〈오늘은 나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정미영 안무)를 선보였다.

또 소외된 이웃을 그린 〈나의 꿈속에서〉(유연희 안무), 유년기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크리스마스〉(임향선 안무) 등을 공연했다.

전북소식

임용묵 | 전북일보 기자

불꽃 같은 삶, 햇불 같은 문학 『제2회 혼불문학제』

고(故) 최명희 선생의 4주기를 맞은 2002년 12월 11일. 그가 아름다운 혼으로 써낸 「혼불」과 문학적 생애를 추모하는 사람들은 올해도 그의 묘소를 찾아 고인의 문학세계와 생애를 기렸다.

이날 『제2회 혼불문학제』가 열린 전북대 삼성문화관 건지아트홀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문학과 독자들이 모였고, 고인이 잠들어 있는 혼불문학공원에도 참배객이 이어졌다.

혼불기념사업회(운영위원장 두재균)와 전라문화연구소(소장 임명진)가 공동 주최한 이날 『혼불문학제』는 독자들의 「혼불」에의 문학적 접근을 돕고, 연구자들에게 「혼불」의 문학적 자산을 탐구하는 계기를 위해 마련된 자리.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참여인사들 중에는 강원통 목사가 눈길을 끌었으며 고인의 스승인 문학평론가 천이두 교수와 시인 최승범 교수, 그의 작품 10권을 완간한 한길사 김언호 사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오전에 열린 문학제에서는 혼불기념사업회가 전북대 신문과 함께 공동 제정한 ‘제2회 최명희 청년문학상’과 ‘혼불학술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학술상 수상자 이덕화 평택대 교수는 ‘죽음의 미학에서 생명의 미학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혼불 홈페이지



(<http://www.honbul.net>)가 시연돼 눈길을 모았다. 혼불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에게 우리 소설의 진수를 알리고 최명희의 햇불 같은 문학을 기리기 위해 제작됐다.

오후에는 ‘혼불과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가 같은 장소에서 열려 혼불의 학문적 연구 작업에 새로운 자극을 불어넣었다. 이날 ‘혼불과 전통문화Ⅱ’를 주제로 ‘혼불 수정과정의 언어 고찰’ (서정섭, 서남대), ‘혼불에 나타난 사상과 종교’ (유성호, 한국교원대), ‘호남의 규방문화와 혼불’ (김정자, 부산대), ‘혼불의 근대성과 민중성의 사회사적 이해’ (원도연, 전북대), ‘혼불의 구술문화적 특성’ (황국명, 인제대) 등이 발표돼 다양한 각도에서 혼불을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김홍수(국민대), 변화영(전북대), 이경(부산대), 박찬승(충남대), 장성수(전북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소설 「혼불」의 학문적 연구 의미와 성과를 진전시켰다.

구상조각의 거목, 야린 배형식 교수 타계

한국 구상조각의 거목 야린(野麟) 배형식 교수가 향년 77세를 일기로 지난해 11월 19일 별세했다.

원광대에서 은퇴한 이후 작품활동에 전념하면서 최근까지도 제자, 후배들의 전시회를 찾아다니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야린은 한국 구상조각의 선구자였다.

홍익대 출신으로 모교에서 재직 중 고향으로 돌아와 원광대를 만드는 데 기여했던 그는 30여 년 동안 원광대에 재직하면서 전북 미술의 기틀을 다졌으며 한국 구상조각의 중심을 지켜온 원로였다.

1956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부통령상을 수상, 탁월한 예술적 역량과 함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는 국전 초대작가와 운영위원, 심사위원을 역임하면서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 힘썼다.

그의 조각은 선이 굵고 낭만적이었으며, 사실적인 묘사, 섬세한 표현력, 재질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낸 인물상은 그의 상징이었다.

“조각예술은 촉각예술이다.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질감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던 그는 한 작품을 제작해 내는 데 오랜 시간을 투자하며 사실적인 인물상을 얻어냈다.

조각의 불모지였던 전북에 조각의 씨를 뿌리고 발전시켜 온 지 40여 년. 그는 “내 일생을 통해 보람을 찾는다면 전북에 조각의 뿌리를 내린 것이다”고 말할 정도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전북 조각에 쏟았다. 40여 년 작품활동 중 가진 개인전은 딱 한 번. 그것도 정년퇴임을 기념해 제자들의 성화로 가진 전시회였다.

『제10회 전북 소극장연극제』 열려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인들이 힘을 모아 관객들과 만나 호흡하는 『제10회 전북 소극장연극제』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열렸다.

3개 극단만 참여해 초라한 잔치상에 그쳤던 2001년에 비해 2002년에는 ‘명태’ (대표 최경성), ‘창작극회’ (대표 류경호), ‘하늘’ (대표 조승철), ‘달란트 연극마을’ (대표 최경식), ‘작은소·동’ (대표 이도현) 등 5개 극단이 참여해 전주 창작소극장과 익산 습리예술회관 소극장 무대를 달궜다.

지난해 10월 전국연극제를 성공적으로 치른 전북지역 극단들의 공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

극단 명태는 신체·정신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결국 가족의 참 의미를 깨우쳐 가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낸 〈날 좀 안아주세요〉(닐 사이먼 작, 최경성 연출)를 선보였고, 창작극회는 사회의 필요악이라는 매음촌의 일상을 다룬 〈옷 벗는 여자〉(김정숙 작, 임정용 연출)를 무대에 올렸다.

극단 하늘은 사회고발 형식으로 풀어낸 〈오늘〉(이만희 작, 조승철 연출)을, 달란트 연극마을은 마임이스트 최경식 씨가 그동안 선보였던 단편 팬터마임을 모은 〈마임 그리고 자유〉를, 그리고 작은소·동은 창작회극 〈행복하세요〉(윤석정 작, 이도현 연출)를 공연했다.

대구·경북소식 최 미 화 | 매일신문 기자

시립미술관 건립 난항

지난 1997년부터 미술계의 요구로 시작된 건립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다 건립 예정지도 시 외곽이어서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문화계에서는 수성구 내환동 월드컵경기장 뒤편에 시립미술관을 지어봤자 활용도나 접근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처럼 시민들이 큰맘 먹고 차 타고 찾아가는 장소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시 중심가에 적은 규모나마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미술관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교준 대구현대미술가 협회장은 “구석진 곳에 위치한 번듯한 미술관보다는, 학교 건물이나 공장부지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미술계에서는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예정지 이전운동을 대규모로 벌일 태세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공감하면서도 “12~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가 끝난 상태여서 이전이 쉽지 않다”며 곤혹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가 내년에 부지(2만 1천 평)를 확보하고 777억원을 들여 2008년까지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지만, 미술계의 예정지 이전 요구에 따라 다소 주춤한 상태다.

화랑 순회 무료 셔틀버스 시민들에게 큰 인기

대구화랑협회(회장 김태수)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린 『2002 화랑축제』에 두 대의 버스를 마련, 이번 행사에 참가한 18개 화랑을 순회토록 했다. 처음에는 홍보부족으로 이용자가 몇 명에 불과했지만 주말과 17, 18일에는 많은 시민이 버스를 이용, 전시회를 돌아보는 모습이었다.

김태수 회장은 “지역 화랑들이 시민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미술 대중화에 진력하는 첫발을 뗐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대구화랑협회는 오는 5월 대구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대구아트엑스포』에도 네 대의 셔틀버스를 이용, 화랑과 행사장을 순회하기로 했다.

한 이용자는 “잘 모르는 화랑에 들어갈 때면 서먹서먹한 느낌을 받곤 했는데, 셔틀버스를 타보니 화랑과의 거리감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남소식 강 동 현 | 경남일보 기자

〈제2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진주순회전〉 열려

국내 최고 권위의 공모전인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2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진주순회전〉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경남도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한국미술협회(이사장 광석손)가 주최하고 미협 진주지부(지부장 허필호)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진주 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대한민국미술대전의 수상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교류와 균등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작품 전시회가 진주에서 열리기는 10여 년 만의 일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비구상계열 대상작인 황제성 씨의 양화 〈순환의 바람으로부터...〉를 비롯해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서예(한글·한문·전각) 부문에서 각각 입상한 대상과 우수상을 비롯한 특선 이상 작품 170여 점이 선보였다.

특히 이들 작품 가운데는 서예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은 박영현(39· 밀양시 북북면) 씨의 한문 〈퇴계선생시 만보(退溪先生詩 晩步)〉 등 도내 출신 작가 7명의 작품도 전시됐다.

사천 최송량 시인, 경남문학상 수상

경남문학상 수상자로 사천의 최송량(64) 시인이 선정됐다. 경남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신상철)는 지난해 12월 6일 마산 불로식당에서 개최된 심사위원회에서 시집 「떠나가는 섬」을 펴낸 최송량 시인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최 시인은 1940년 삼천포(현재는 사천)에서 출생하여 『월간 문학』을 통해 등단해 그 동안 「삼천포 육자배기」 「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란 말인가」 「서쪽에 뜨는 달」 「까치놀 우는 저녁바다」에 이어 이순을 넘긴 나이에 40년 창작생활을 정리한 시집 「떠나가는 섬」을 내놓았다.

『2003 통영국제음악제』 일정 확정

『2003 통영국제음악제』가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 ‘꿈’을 주제로 펼쳐진다.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는 『2003 통영국제음악제』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했다.

국제행사로 승격된 후 두번째인 『2003 통영국제음악제』의 주제 ‘꿈’은 이제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도시로서의 발전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해에도 클래식과 현대음악이 주가 되는 20여 회의 수준 높은 공식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프린지 공연과 스페셜 공연이 준비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해에는 사회성 짙은 음악들을 소개했다면 올해 통영국제음악제에서는 종교색이 짙은 클래식과 현대의 명곡들을 선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2003 통영국제음악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단체들이 대거 참가를 희망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빈 필)의 참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세계 양대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빈 필은 국제음악제 폐막 공연을 책임질

예정인데 세계적 거장 주빈 메타의 지휘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비롯해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장영주와 협연하게 된다.

개막 연주는 윤이상의 오랜 친구이자 세계 최고의 오보에 연주자이며 작곡가인 하인츠 홀리거가 윤이상에게서 헌정받은 오보에 협주곡을 앙상블 모데른과 협연하게 된다.

제주소식

김 순 자 | 제민일보 기자

‘2002 제주도문화상’에 조명철 씨 등 8명 수상

제주도는 ‘2002 제주도문화상’에 수필가 조명철(69·전 제주시교육장) 씨 등 8명을 선정, 지난해 12월 21일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학술·예술·교육·체육·언론출판·관광산업·1차산업·해외동포 등 8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된 이번 제주도 문화상은 언론출판과 관광산업 분야에 수상자를 내지 못하고 예술과 체육 분야에 각 2명씩의 수상자를 내 모두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분야별로 보면 학술 분야에 고창석(61·제주대 교수), 예술 분야 조명철·부현일, 교육 분야 현화진(74·전 제주도교육위원), 체육 분야 고우방(58·제주도태권도협회장)·고(故) 김승곤(전 제주대 교수), 1차산업 분야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 신부(74·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이사장), 해외동포 분야 김효황(60·제민일보 회장) 씨가 각기 상패와 상금 500만원씩을 받았다.

도립예술단 창작무용〈붉은 영혼〉, ‘신선한 무대’

지난해 11월 28·29일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인 제주도립예술단 제25회 정기공연 〈붉은 영혼〉은

우리 민족의 아픔과 한을 춤사위로 절절하게 표현한 창작무대였다. 그 동안 제주 민족과 신화·자연 등을 형상화한 제주도립예술단은 이번에 일제의 징용과 군위안부, 제주 4·3사태 등을 소재로 우리 민족의 비극을 과감하게 무대에 올려 새로운 몸짓언어의 가능성을 열었다.

암흑의 일제시대를 상징하는 가요와 애절한 음률로 서서히 막이 오른 〈붉은 영혼〉은 모두 12장으로 구성돼 다채로운 춤사위를 엮어냈다. 징용을 떠나는 남자의 아픔과 분노를 담아낸 ‘징용춤’, 침략자의 힘을 과시하여 징용자를 짓누르는 공포를 담아낸 ‘깃발춤’, 군위안부의 처절한 현실을 그린 ‘아픔의 춤’, 해방의 기쁨을 형상화한 ‘환희와 희망의 춤’, 이념의 갈등으로 갈라진 민중들의 아픔을 그린 ‘배신의 춤’, 4·3사태의 무고한 죽음을 표현한 ‘떠도는 혼의 춤’, 처참한 죽음을 위무하는 노인의 한 맺힌 절규를 담은 ‘노파의 춤’ 등 장마다 바뀌는 몸짓언어를 40여 명의 무용수들은 무리 없이 소화해 냈다.

장면장면 바뀌는 변화무쌍한 조명과 무대 뒤편 열기 설기 세워진 쇠막대 등 무대에도 많은 공을 들인 작품이었다.

이번 무대를 통해 제주도립예술단은 창작춤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한층 높아진 기량으로, 제주지역 대표 무용단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다.

흙과 불로 엮어낸 웅기 이야기 〈돌가마〉전

제주에는 질박하면서도 투박한 기물이 전해 왔다. 물과 간장, 된장, 곡식 저장용으로 쓰였던 큼지막한 항아리와 허벅, 장태, 화로 등등. 황토빛과 거무스레한 그릇은 제주의 노랑굴과 검은굴에서 구워진 제주 고유의 문화자산이다. 그러나 이런 질그릇이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등장으로 1960년대 말 자취를 감춰 역사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예원 강창언 원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웅기작업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내고 설득해 제주 돌가마를 새롭게 축조하고 선인들이 숨결이 깃들인 제주웅기 복원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제주 주재기자로 활약하는 김호천 씨의 첫 개인전 〈돌가마〉(2002년 12월 14~20일)는 되살아난 제주웅기와 이를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사진전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다. 3년 동안 흙과 불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제주도예원을 들락거리며 촬영한 50점의 크고 작은 사진 속에는 제주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땀내가 스며 있다. 제주 특유의 돌가마를 축조하고, 이곳에서 흙을 이기고, 토림질을 하고, 물레질을 해 그릇을 만들고, 이를 말리고, 불을 때 그릇을 굽고, 꺼내는 웅기제작의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뜻깊은 다큐 사진전이였다.

‘문화예술진흥행정 관련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비리나 요소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문화예술진흥행정 관련분야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공연·전시장 운영관리, 각종 공사·물품구매계약, 문예진흥기금지원 등 문화예술행정 각종 업무 관련 비리·부조리, 직권남용, 업무해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조리 신고접수는 전화 또는 문서(팩스 포함)로 할 수 있고, 허

위제보를 막기 위해 실명제로 신고하여, 내·외부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처리·회신할 계획입니다.

- 설치장소 : 문예진흥원 감사실(서울 종로구 동숭동 1-130)
- 신고전화 : 02-760-4509(문예진흥원 감사역)
- 팩스 : 02-760-4660

깨끗한 사회는 또 하나의 경쟁력